

# DECO

April 2009  
JOURNAL

월간 데코저널 since 1995 www.decojournal.co.kr VOL.165

Space

KU64

Ogilvy & Mather  
Engine Offices  
FITTING FORWARD  
St. Germain

Theme Special

2009 Interior Tile Trend

Next Design

Next Designer's Art works

CEO Interview

(주)말도목재산업 조동철 대표

Observation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Provence Style

4

주목받는 신인 디자이너

# Pepe Heykoop

매년 세계의 많은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선보이는 젊은 가구 박람회 [d3] 디자인 콘테스트. 2009년 이 콘테스트는 무명의 네덜란드 신인 디자이너 페페 헤이코프를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사물을 보는 다른 각도의 호기심과 실험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 신선한 디자인의 매력 헤이코프 작품세계를 들여다보자.

에디터 김기연 desk@decojournal.co.kr 자료제공 Pepe Heykoop(www.pepeheykoop.nl)



1, 2. 페페 헤이코프의 불안한 의자 'Restless chair'는 많은 사람의 의도며 따라 자유롭게 움직인다. 2009 [d3] 디자인 콘테스트의 1등상을 차지한 작품.

페페 헤이코프Pepe Heykoop는 1984년생의 네덜란드 신인 디자이너이다. 작년 디자인 아카데미 에인트호벤Design Academy Eindhoven을 갓 졸업한 디자이너 이지만, 2009 젊은국제가구 박람회의 [d3]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d3] 디자인 콘테스트는 젊은국제가구박람회가 재능 있는 차세대 디자이너들을 위해 마련한 콘테스트이다. 올해는 총 827점의 응모작 가운데 31개 작품이 전시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페페 헤이코프의 '불안한 의자 A Restless Chair'가 1등에 선정되었다. 페페 헤이코프의 '불안한 의자'는 디자인 아카데미 에인트호벤 졸업 작품으로, 작년 디자인하우스에서 개최된 '멜런드 2008' 전시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

'불안한 의자'는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의자의 불안정한 움직임으로부터 디자인이 출발했다. 비록 딱딱하고 든든한 나무의자로 보이는 겉모습으로 인해 매우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 디자이너는 의자에 몇 개의 움직일 수 있는 조인트를 달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했다. 이 의자는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비틀어지고 움직일 수 있어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최근에 페페 헤이코프는 독특한 '브리 시리즈brick series'를 완성했다. 브리시리즈 중 브리 체어 brick chair는 그가 로스앤젤레스의 아티스트 James Gulliver Hancock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이다. 선으로 표현된 일러스트레이션에 색감을 넣고 어린이용 블럭으로 쌓아 완성했다. 한편 브리 체어 후에 그는 브리 상들리에brick chandelier를 제작했다. 브리로 또 다른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브리 상들리에는 2m가 넘으며 총 100 여개의 어린이용 블럭이 사용되었다. [2]



3, 4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는 페페 헤이코프의 '불안한 의자 Resless chair'



5, '브릭시리즈brick serie' 중 '브릭 체어brick chair'  
6, '브릭시리즈brick serie' 중 '브릭 샹들리에brick chandelier'  
7, 디자이너 페페 헤이코프Pepe Heykoop

